

1. 스위스 종교개혁 (Reformation in Switzerland)

- (1) 취리히 (Zurich)의 시행정관 마크 로이스트(Mark Reust)와 취리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츠빙글리에 의해 추진된 스위스의 종교개혁 운동
- (2) 츠빙글리가 1519년 1월 1일, 취리히 그로스뮌스터교회(Grossmünster)에서 마태복음 첫 설교를 한 날을 스위스 종교개혁의 원년 (2019년도가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 (3) 13개의 주(cantons) 중 7개의 주가 카톨릭을 지지하여, 반종교개혁(anti-Reformation)을 추진하였고,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서 카펠 전쟁(Kappel Wars, 1529, 1531)이 발발했고, 카톨릭이 최종 승리.
- (4)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실천에 있어 유일한 규범이고, 어떤 공의회나 교부들의 가르침보다도 우선함. (성경의 권위 확립)

2. 울리히 츠빙글리 (Ulrich Zwingli 1484-1531)<sup>1)</sup> : 종교개혁 1세대의 양대산맥

- (1)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출생. 그는 루터처럼 구원을 알기 위해 애쓰거나 죄에 대한 양심의 찢림을 경험한 적이 없음. 1506년(22세) 석사학위를 받고,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됨.
- (2) 그는 로마 교회의 교리적 사상보다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humanism), 특별히 기독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음.
- (3) 1506-1516: 첫 사역지인 글라루스(Glarus)에서 라틴 고전문학과 철학을 깊이 연구했고, 후에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함
- (4) 1516-1519: 그는 두 번째 사역지인 아인지델른(Einsiedeln)에서 3년을 지내면서 헬라어 신약성경을 깊이 연구하였고, 복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에 회심체험을 함.  
비로소 복음을 설교. 성물숭배(relics), 미신적 성화(pictures), 마리아숭배(Mariolatry) 반대. 카톨릭 사제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과 윤리관의 극단적 해이에 대해 청산해야 함을 강조.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covenanted)을 했으나 아직 개혁할 준비가 부족.
- (5) 1519-1531: 그는 취리히의 대교구의 사제가 되었고, 로마 교회의 미사, 방탕함, 성물 숭배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됨. 특별히 사제 독신주의(celebracy)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함.  
1522년 젊은 과부 아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t)와 비밀결혼을 함. 이 문제로 위기에 처했으나 공식적으로 파면되지는 않음.  
1523년, 시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67개조 신앙고백을 발표함.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했고, 1525년 종교개혁은 취리히에서 승리.  
종교개혁의 승리 기운은 밸리 주(Valley Cantons)의 승리까지,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줌.  
1531년 카펠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음.

3. 츠빙글리의 67개조 신앙고백의 주요 내용

- (1) §1-3.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은 복음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회 무오 비판, 오직 성경)  
복음의 요점과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 주셨고 그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하나님과 화하게 하셨다.

1) Dr. Jack L. Arnold (국제목회사역원 Equipping Pastors International 설립자)의 강의안을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 살아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 모두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

(2) 교황, 미사, 성자들의 중보에 대한 비판 (§17-21.)

(3) §22.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관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행위가 우리의 것이라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 선행의 제한)

(4) §23.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경멸하셨다. 그러므로…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탐욕과 사리의 구실로 삼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물을 모으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심하게 모욕하는 사람들이다.

#### 4.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 (The Clarity and Certainty of the Word of God, 1522. 9 출판)<sup>2)</sup>

(1) 츠빙글리는 성경의 신학자 : 성경을 최고의 권위와 최종적인 결정 기준으로 설정한 학자.

(2) 교황의 어록, 로마 교회의 결정, 교부들의 권위보다 가장 최고, 최종의 권위는 성경이다.

(3)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수립 : 성경이 모든 것을 시험한다.(test of Scriptura)

→ 성경이 수용하는 것은 나도 따르고, 성경이 거부하는 것은 나도 배제한다. (⇔ sola Scriptura)

모든 교리(→ 신학적 진술, 요약)는 성경을 기초로하고, 예배 역시 성경이 기반이다.

성경이 어떤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엄격한 적용)

(4)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적 성경해석과 철학적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다.

(5)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 외적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신자 내면에 부여되는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내적 말씀)

#### 5.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논의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 1525. 3 출판)<sup>3)</sup>

(1)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묘사한다.

(2) 거짓 종교에 있어 우상숭배(Idolatry)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 6.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에 주는 교훈

(1)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 유일한 표준이다. 성경은 그 자체로써 명료하며, 능력이다.

→ 연속적 성경읽기 (Lectio Continua)와 강해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냄)

(적용과 실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삶에 적용하는 삶 (→ 날마다 성경운동)

(2)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심. 그의 은혜로써 값없이 구원을 주심

(적용과 실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심.

→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허락의 소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다시 시작함.

(3) 거룩한 삶(성화 sanctification)으로 나가자.

⇒ (적용과 실천) 죄와의 계속적인 싸움. 거룩한 삶을 추구함. 개인 윤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2) David Calhun “The Clarity and Certainty of the Word of God: 쏘 Life and theology of Ulrich Zwingli”,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2006. 참조

3) Ibid.